

# 높임표현 학평 기출 문제

1. ㉠~㉥ 중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높임 표현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다.

선생님 :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지은 :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 기특하다. 할머니를 ㉢뵈고 왔구나. 가서 무엇을 했니?

지은 :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신 사이에 저는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선생님 : 저런, 할머니께서 ㉥편찮으셨나 보다.

[2점]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

2. <보기>의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선어말 어미나 조사, 특수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주체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그리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나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ㄱ. (어머니가 아들에게) 범서야, 할아버지께 과일 좀 갖다 드려라.

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ㄷ. (동생이 언니에게) 언니, 어머니가 우리에게 대한 걱정이 많으셔.

[2점]

- ① ㄱ은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청자인 '범서'를 낮추고 있다.
- ② ㄴ은 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ㄴ은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ㄴ은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⑤ ㄷ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생각인 '걱정'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I like you.'를 번역할 때, 듣는 이가 친구라면 '난 널 좋아해.'라고 하겠지만, 할머니라면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며,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쓰기도 한다. 그 밖에 '계시다', '주무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고,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	하십시오체	합니다, 합니까? 등
	하오체	하오, 하오? 등
	하계체	하네, 하는가? 등
	해라체	한다, 하냐? 등
비격식체	해요체	해요, 해요? 등
	해체	해, 해? 등

격식체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자리나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은 '모시다', '여쭙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3. 다음 문장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셨다.
- ② 교수님께서서는 책이 많으시다.
- ③ 어머니께서 음악회에 가셨다.
- ④ 선생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 ⑤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4. <보기>의 [A]~[C]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ㄱ ~ ㄷ은 높임 표현이 사용된 문장들이다. 아래의 순서도에 따라 ㄱ ~ ㄷ을 분류해 보자.

ㄱ.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ㄴ. 할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집에 계신다.  
 ㄷ.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가셨다.

↓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가?

아니오 → [A]

↓ 예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가?

아니오 → [B]

↓ 예

[C]

	[A]	[B]	[C]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ㄴ	ㄱ

[2점]

- ① ①번
- ② ②번
- ③ ③번
- ④ ④번
- ⑤ ⑤번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객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여쭙다' 등 높임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2점]

- ①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 ②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밝으십니다.
- ④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 ⑤ 윤우야,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 피동 표현 등이 있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으)시-'가 붙어서 실현되며, '주무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로 실현되기도 한다. 주체 높임에는 높임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과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사용해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있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보통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로 실현된다.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이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데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같은 격식체와 해요체, 해체와 같은 비격식체로 나뉜다. 보통 공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며 상대를 높일 때에는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사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드러내며 높일 때에는 비격식체의 해요체를 사용한다.

한편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표현하는 것은 능동 표현이라고 한다. 그런데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거나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에 변화가 일어난다. 피동 표현은 능동의 동사에 피동 접미사 '-아-', '-히-', '-리-', '-기-'가 붙거나, 동사의 어간에 '-어/아지다', '-게 되다' 등이 붙어 실현된다. 그리고 일부 명사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피동 표현이 실현되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므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간혹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중복으로 결합하여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표현이 되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동 표현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중요하다.

6.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회장이 학급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ㄴ. (언니가 동생에게) 나는 지난주에 할머니를 뵙고 왔어.  
ㄷ. (형이 동생에게)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니?  
ㄹ.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옷이 멋지십니다.  
ㅁ.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께 다녀왔어요.

[2점]

- ① ㄱ: '회장'은 공적인 상황에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상대인 '학급 친구들'을 높이고 있다.
- ② ㄴ: '언니'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ㄷ: '형'은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ㄹ: '학생'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ㅁ: '아들'은 조사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7.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대상은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한편,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한 문장 안에서도 다양한 높임법이 쓰일 수 있다.

<보 기>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

아들: ㉠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아버지: 무슨 일 있니?

아들: ㉡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

㉢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아버지: 그래, 거의 다 왔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런데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니?

아들: ㉤ 아직 안 주무셔요. ㉥ 방금 어머니께서 할머니 모시고 나가셨어요.

[2점]

- ① ㉠은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② ㉡은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③ ㉢은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④ ㉤은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⑤ ㉥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다르다.

8. 다음은 높임 표현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높임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보기> 문장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설명해 보자.

종류	실현 방식
상대 높임	· 대화의 상대, 즉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춤 · 종결어미 ‘-습니다’, ‘-다’, ‘-(으)십시오’, ‘-(아/어)라’ 등을 사용
주체 높임	· 서술의 주체, 즉 문장의 주어에 높임 · 선어말 어미 ‘-(으)시-’ 결합 · 주격 조사 ‘께서’ 사용 · 특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등 사용
객체 높임	· 서술의 객체, 즉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임 · 부사격 조사 ‘께’ 사용 · 특수 어휘 ‘드리다’, ‘봌다’ 등 사용

— <보 기> —

㉠ 채운아, 할아버지께 물 좀 갖다 드려라.

㉡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_\_\_\_\_

- [3점]
- ① ㉠은 종결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채운’을 낮추고 있다.
  - ② ㉠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특수 어휘 ‘말씀’을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종결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⑤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9. <보기>의 ㉠ ~ ㉥에 사용된 문법 요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삼촌께서 내가 드린 신문을 읽고 계시다.

㉡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멋진 생일 선물을 사 주셨다.

㉢ 언니가 할머니를 모시러 가던 길에 나와 마주쳤다.

㉣ 나는 친구에게 선생님께 여쭙본 내용을 공유하였다.

㉤ 동생이 할아버지께서 편히 주무시도록 이부자리를 살폈다.

문장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격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격조사	특수 어휘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10.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 담화 상황에 등장하는 ㉠, ㉡이 달라질 때, 언어 예절에 적합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 보자.

**[담화 상황]**  
(내가 철수에게)  
“어제 ㉠ **영희**가 ㉡ **경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어.”  
※ 말하는 사람인 ‘나’와 철수, 영희, 경희는 서로 대등한 관계임.

[2점]

- ①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조사 ‘가’를 ‘께서’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②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조사 ‘에게’를 ‘께’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③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주는’을 ‘주시는’으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④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보았어’를 ‘보셨어’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⑤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보았어’를 ‘보았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